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A, B는 동양 사상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두루 사랑하되 편을 만들어 무리를 짓지 않는다. 부귀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는다면 누리지 말아야 하며,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직하게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떠나지 말아야 한다. A가 인(仁)을 떠나면 어찌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겠는가?
 ○ 무릇 도(道)라는 것은 아무리 커도 다함이 없고, 작더라도 없는 곳이 없어 만물에 다 갖추어져 있다. 넓디 넓어서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고,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도 없다. 덕을 인의(仁義)로 나타내는 것은 정신의 말단적인 것이다. B는 그런 말단적인 행위를 결코 하지 않는다.

- ① A는 타고난 성정(性情)을 교정하여 자연의 본성과 일치시킨다.
- ② A는 '나'라는 의식을 제거함으로써 이상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 ③ B는 본래의 선한 마음(四端)을 확충하고 자연을 존중한다.
- ④ B는 오감(五感)을 통해 자연에 관한 지식을 쌓은 사람이다.
- ⑤ B는 A와 달리 일체의 분별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을 하나로 여길 것을 강조한다.

2. (가)의 관점에서 대답할 때, (나)의 ㉠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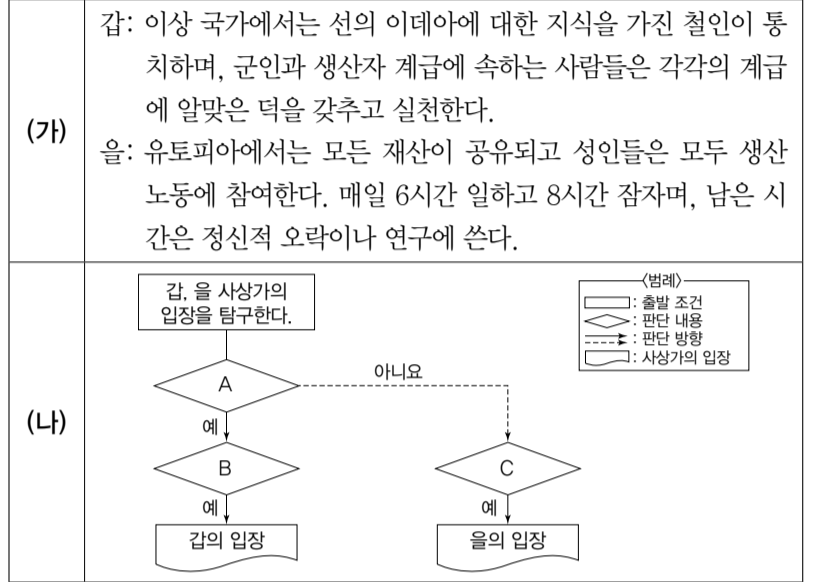
(가)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며, 본성에 반(反)하여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품성적 덕을 받아들일 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품성적 덕을 얻게 된다.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기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나)	학생: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사: _____ ㉠ _____

<보기>

- ㄱ. 좋은 습관의 형성으로 의지의 나약함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 ㄴ. 이성적인 사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무지를 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 ㄷ. 실천적인 지혜를 통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ㄹ.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과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A: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지혜로운 자가 통치할 때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 ㄴ. A: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이상 사회인가?
- ㄷ. B: 사유 재산과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이상 사회인가?
- ㄹ. C: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은 이상 사회의 필수 조건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가)의 갑, 을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옳은 평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므로, 쟁탈이 생기고 사양(辭讓)함이 사라진다. 따라서 사람의 성(性)과 정(情)을 좇으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이치를 어지럽혀 폭동으로 귀결된다. 을: 사람은 땅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고, 땅은 하늘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으며, 하늘은 도(道)를 본받아 어긋나지 않고, 도는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
(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겨 내고 ㉠ 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보기>

- ㄱ. 재화의 공정한 분배 기준이다.
- ㄴ.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덕목이다.
- ㄷ.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난 도덕성이다.
- ㄹ.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인위적인 규범이다.

- | | | | |
|-----|---|-----|---|
| 갑 | 을 | 갑 | 을 |
| ① ㄱ | ㄴ | ② ㄱ | ㄹ |
| ③ ㄴ | ㄷ | ④ ㄷ | ㄹ |
| ⑤ ㄹ | ㄴ | | |

5.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인(聖人)의 학문은 하나의 공부일 뿐이니, 지와 행을 둘로 나눌 수 없다. 지의 진절독실(真切篤實, 진지하고 독실함)한 면이 바로 행(行)이고, 행의 명각정찰(明覺精察, 밝게 깨닫고 정밀하게 살핌)한 면이 바로 지이다. 지와 행은 원래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

을: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는 정(情)이고 인의예지는 성이다. 마음[心]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사단의 '단(端)'은 실마리[緒]이다. 정의 드러남으로 인하여 성의 본연 을 볼 수 있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물건의 실마리를 보고 물건 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 ①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는 것인가?
- ②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성이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인가?
- ③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탐구해야 하는가?
- ④ 선한 본성을 보존·함양하고 나쁜 마음을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가?
- ⑤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에 대해 알아야 선(善)을 행할 수 있는가?

6. 다음은 어느 학생의 필기 내용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습 주제: 강화학파의 사상

1. 등장 배경: 정제두의 학문을 강화 지역에서 계승한 학자들에 의해 형성됨. ㉠
2. 학문적 배경: 양명학을 수용하고, 도교와 불교도 수용함. ㉡
3. 핵심 가르침
 - (1) 철저하게 자기 내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함. ㉢
 - (2) 참된 자아의 각성과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함. ㉣
4. 영향: 위정척사 사상과 의병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귀명(歸命)이란 환원(還源: 근원으로 돌이킴)의 뜻이다. 중생들의 감각적·심리적 기관은 '하나인 마음[一心]'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것은 도리어 그 스스로의 근원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 부산한 먼지를 피우기에 이르렀다. 모든 번뇌가 이로부터 나온다. 이제 목숨을 들어 이 부산한 먼지를 일으키는 번뇌의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그 본래의 원천, 즉 '하나인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나)	" ㉠ " 그러면 올바른 수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 기>

- ㄱ. '다름'을 '같음'에 통합시켜 하나로 동질화하라.
- ㄴ. 화쟁을 위해 '같음'과 '다름'을 대립시켜 파악하라.
- ㄷ. '같음'과 '다름'과 같은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라.
- ㄹ.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음을 파악하라.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다음 두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진정 올바른 반야를 일으켜 관조할 경우 찰나간에 망념은 모조리 없어지며, 자성(自性)을 인식하여 한 번 깨달으면 곧장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 '선정(禪定)'이란 무엇인가? 밖으로 형상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혼란되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형상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혼란되며, 밖으로 형상을 벗어나면 마음은 혼란되지 않는다. 본성(本性)은 그 자체로 깨끗하고 그 자체로 정립되어 있으나 다만 대상을 보고 대상을 생각하므로 혼란된다.

- ① 모든 존재의 고정된 실체성을 깨달을 때 자성(自性)을 인식할 수 있다.
- ②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해탈을 도모해야 한다.
- ③ 선(禪)의 수행을 통해서 원인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④ 부처의 가르침을 직접 선(禪)의 수행으로 깨달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 ⑤ 불교 교리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바탕으로 불성을 깨닫는 견성(見性)을 실천해야 한다.

9.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이제는 해원 시대(解冤時代)라,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에 길운이 돌아오느니라. ... (중략)... 반상(班常)의 구별과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속히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p> <p>을: 우리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守心正氣] 그 성품을 거느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해 빌 따름이다.</p>
(나)	

- ① A: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② A: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이상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 ③ B: 기존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 ④ C: 원한을 풀고 은혜를 갚음으로써 지상 낙원을 실현해야 한다.
- ⑤ C: 동양의 정신문화를 지키면서 서양의 물질문명을 수용해야 한다.

10. 다음 고대 서양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되어 갈 것이다.

○ 인간의 정신을 방해하는 것은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려운다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동요와 슬픔 때문에 방해받는다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돌리도록 하자.

- ① 모든 사람은 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평등하다고 보았다.
- ② 은둔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 ③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제시하였다.
- ④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하였다.
- ⑤ 신(神)을 인간과 우주 자연을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와 개인에게 실제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지식은 오직 진실한 철학자로부터 나온다. 거짓 철학자가 아닌 참된 철학자 집단이 국가를 통치할 때까지 또는 국가의 통치자가 신의 섭리에 의해 참으로 철학하기를 스스로 결심할 때까지 인류는 그들의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중략) ...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이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 ① 통치자는 구성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 ②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군인이 되어 국가를 수호한다.
- ③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된다.
- ④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 ⑤ 구성원들은 세습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계층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한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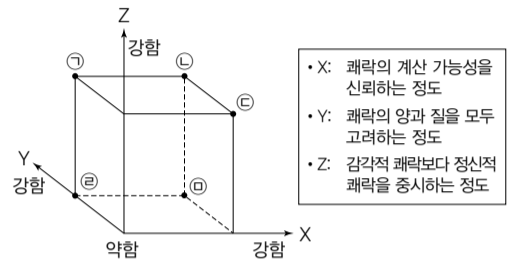
만약 유용성이 도덕감(道德感)의 원천이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우리의 시인과 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도덕의 기원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원리이다. ... (중략) ...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진다. 어떤 행위나 인격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인(是認)의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좋은 것으로, 그 반대라면 나쁜 것으로 규정된다.

- ① 공감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 ② 도덕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실재(實在)하는가?
- ③ 감정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 ④ 이성보다 감정이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가?
- 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가?

13.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에 비해 을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등의 기준을 통해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감각적인 쾌락보다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4.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의 K씨의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평가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도덕적 명령은 가언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공리의 원리를 전제해야 한다.

<사례>

K씨는 연못 주변을 걷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보았다. K씨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연못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 무사히 빠져나왔다.

- ① 갑: 위험에 처한 아이에게 동정심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 ② 갑: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 ③ 을: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 ④ 을: 아이를 도와야 한다는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다.
- ⑤ 갑, 을: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절대적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다.


15. 다음의 관점을 지닌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자연적 존재 이상의 것이다. 그는 또한 불멸의 영혼이다. 모든 자연적 덕을 성취한다고 해서 인간의 궁극적 목표, 즉 영원한 행복(至福)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전의 순정 무구한 상태를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세 가지의 신학적 덕, 즉 초자연적 덕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되고 그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에만 가능하다.

- ① 이성은 인간과 신과 세계의 본성이다.
- ② 신학의 진리보다 철학의 진리를 우선시 해야 한다.
- ③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④ 이성적 관조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 ⑤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을 통해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들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여성의 판단이 언뜻 산만하고 혼돈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여성의 도덕적 장점, 즉 여성들이 인간관계와 배려의 의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 ① 도덕 교육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정의와 공정성이다.
- ② 여성보다 남성을 더 배려하는 도덕 교육이 필요하다.
- ③ 여성의 도덕성은 남성의 도덕성보다 그 수준이 떨어진다.
- ④ 배려하고 배려를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다.
- 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윤리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17. 다음 사회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소유 혹은 통제하는 소수자에 의한 종속으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민중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사회주의자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 사회주의자는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의 독재하에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를 표명한다.

- ① 특정 부문에서의 사적 소유를 용인할 수 있다.
- ② 분배의 기준으로서 필요와 공적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③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사회 실현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 ④ 폭력 혁명이 아닌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소수에게 경제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주의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18. 갑, 을 두 사상가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군주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면, 정치는 손바닥을 뒤집듯 쉬울 것이다. 군주가 인의(仁義)를 저버리고 다스린다면 그는 이미 군주가 아니다.

을: 사람들은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암묵적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사람들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보 기>

- ㄱ. 정치권력의 근원은 민(民)에게 있는가?
- ㄴ. 민(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가?
- ㄷ. 민(民)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 ㄹ. 민(民)은 정치 지도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권리가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 사회사상가인 갑, 을이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①	갑이 을에게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②	갑이 을에게	도덕 원리는 이익의 균등한 분배를 지향해야 합니다.
③	갑이 을에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④	을이 갑에게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⑤	을이 갑에게	합리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할 경우에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0.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의 가치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에 달려 있으며 개인을 경시하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병: 공동체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전통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전통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개인은 지적·도덕적 빈곤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 ① 갑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인간의 개체성보다 사회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병과 달리 전통이나 관습보다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다.
- ⑤ 병은 갑, 을과 달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공동선을 더 중시한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